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9년 2월 4일
(월요일)

강북신문 5면

최미경 의원 제안설명,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위해 ‘한 목소리’ 지역아동센터 개선과 예산편성 건의안 채택

‘지역아동센터 관련 불합리한 운영비 지원 제도 개선과 아동 프로그램비 부족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건의안’이 지난 18일 열린 강북구의회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강북구의회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각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해 온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하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운영비 지원 제도의 개선과 아동 프로그램비 부족분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반영할 것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안설명에 나선 최미경 의원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각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해 온 지역아동센터의 2019년 정부지원 기본운영보조금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운영보조금 인상률은 고작 2.8%에 그치고 말았다”라고 지적하고 그로 인해, 인건비, 관리운영비, 아동프로그램비가 구분되지 않고 하나로 구성된 기본운영비 지출에 있어서 종사자의 인상된 최저



최미경 의원

임금과 관리운영비를 지출하면 아동 프로그램비가 전체 기본운영비의 10%를 의무지출해 왔던 것보다도 더 줄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동 보호를 위한 예산지원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합리한 운영비 지원제도의 개선과 아동 프로그램 부족분을 조속히 추가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최미경 의원은 “그동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하며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라며 △2019년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예산 중 아동 프로그램비가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여 추가경정예산 조속 편성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기본운영비가 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비로 분리되지 않고 혼재되어 편성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의 제도 개선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강북신문 5면

지역아동센터 추경예산편성과 제도의 문제점 개선 촉구

최 미 경 의원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제22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미경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관련 불합리한 운영비 지원 제도 개선과 아동 프로그램비 부족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건의안을 대표발의(공동발의:구본승, 허광형, 조윤섭, 김영준, 유인애, 이용균 의원) 했다.

최미경 의원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각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해 온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하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운영비 지원 제도의 개선과 아동 프로그램비 부족분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반영할 것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최 의원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각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해 온 지역아동센터의 2019년 정부지원 기본운영보조금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운영보조금 인상률은 고작 2.8%에 그



▲ 최미경 의원.

치고 말았다.

그로 인해, 인건비, 관리운영비, 아동프로그램비가 구분되지 않고 하나로 구성된 기본운영비 지출에 있어서 종사자의 인상된 최저임금과 관리운영비를 지출하면 아동프로그램비가 전체 기본운영비의 10%를 의무지출해 왔던 것보다도 더 줄어 들 수밖에 없다. 이에 아동 보호를 위한 예산지원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합리한 운영비 지원제도의 개선과 아동프로그램 부족분을 조속히 추가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제안이

유를 밝혔다.

최미경 의원은 기본운영비 지출에 있어서 종사자의 인상된 최저임금과 관리운영비를 지출하면 아동 프로그램비가 전체 기본운영비의 10%를 의무지출해왔던 것보다도 더 줄어 들 수밖에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런 연유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3년을 일하고, 10년을 일해도 오랜 근무에 따른 가산급이 지급되지 않고 동일한 임금수준으로 ‘겨우 최저임금’을 받는 현실보다 최저임금을 받게 되는 순간 그나마도 적은 아동프로그램 예산을 뺏겨 와야 한다는 자괴감에 빠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최미경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2019년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예산 중 아동 프로그램비가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편성할 것과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기본운영비가 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비로 분리되지 않고 혼재되어 편성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의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동수 기자 cds0012000@hanmail.net〉

지역아동센터 제도 개선과 예산편성 건의안 채택

최미경 의원 제안설명,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위해 '한 목소리'



지역아동센터 관련 불합리한 운영비 지원

제도 개선과 아동 프로그램비 부족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건의안'이 지난 18일 열린 강북구의회 제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단장설치로 채택됐다.

이건 건의안은 강북구의회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각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해 온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하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운영비 지원 제도의 개선과 아동 프로그램비 부족분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반영할 것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으로 담겨 있다.

제안설명에 나선 최미경 의원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각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해 온 지역아동센터의 2019년 정부지원 기본운영보조금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운영보조금 인상률은 고작 2.8%에 그치고 말았다"라고 지적하고 그로 인해, 인건비,

관리운영비, 아동프로그램비가 구분되지 않고 하나로 구성된 기본운영비 지출에 있어서 종사자의 인건비 최저임금과 관리운영비를 지출하던 아동 프로그램비가 전체 기본운영비의 10%를 의무지출에 왔던 것보다도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동 보호를 위한 예산지원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합리한 운영비 지원 제도의 개선과 아동프로그램 부족분을 조속히 추가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최미경 의원은 "그동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하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도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라며 스2019년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예산 중 아동 프로그램비가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여 추가경정예산 조속 편성 스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기본운영비가 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비로 분리되지 않고 혼재되어 편성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의 제도 개선해 마련 등을 촉구했다.